보 도 해 명 자 료
('14.10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최원식 "원전, 사이버보안에 무방비 노출" 보도에 대한 입장 ('14.10.8. 이데일리, 아시아투데이)

1. 기사내용

□ 국내 원자력시설이 5년간 **1,843회 사이버 침해**를 당했으며,

○ 최근 한빛원전의 내부업무망 **ID와 패스워드 유출사건** 발생

○ 사이버보안 인력은 전체인원 1만 9,693명 중 0.26%(53명) 불과하며, 사이버 관제센터는 **위탁인력 9명**이 운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한수원 원자력시설은 지난 **5년간 1,843회의 침입시도를 사전탐지**하여 방어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
○ 원전 제어망과 인터넷망 분리, 24시간 보안 관제체계 구축, 클린룸 설치, 제어시스템 USB포트의 물리적 봉인 등의 정보보안조치를 통해 **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**

○ 다만, 최근 한빛원전에서 보건물리실의 직원과 용역직원이 업무를 위해 **ID와 패스워드 공유한 사실이 있어** 감사 중이나 동 ID로는 비밀이나 제어망에는 접근할 수 없음

□ 사이버보안인력 **53명은 정보화인력 120명('13년) 대비 44.2%**에 해당하며, **사이버보안관제는** 전력 등의 공기업의 정보화·보안 업무를 위해 설립된 **공공기관인 한전KDN에서 위탁 수행** 중임

※ 관련 문의 : 정보관리담당관 김미애 과장(044-203-5550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